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의 원년' 을 맞이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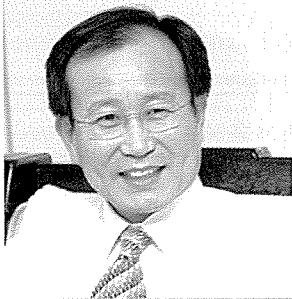
몇 해 전부터 잘 먹고 잘 살자는 웰빙 열풍이 사회를 휩쓸더니 그 자리를 '로하스' 라는 개념이 대신하고 있다. '로하스' 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웰빙을 실천하자면 환경을 해치지 않고 생활해야 한다는 이른바 친환경적인 삶의 지향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사람이 '잘 사는 일' 이 건강한 환경과 자연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명제인데, 이를 이해하고 실천하기까지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접어들며 국민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원하고 있지만, 환경문제는 얽히고설킨 실타래처럼 갈수록 복잡해져만 가고 있다. 경제개발은 우리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천식, 아토피 등 각종 환경성 질환이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생활용품에서 환경 호르몬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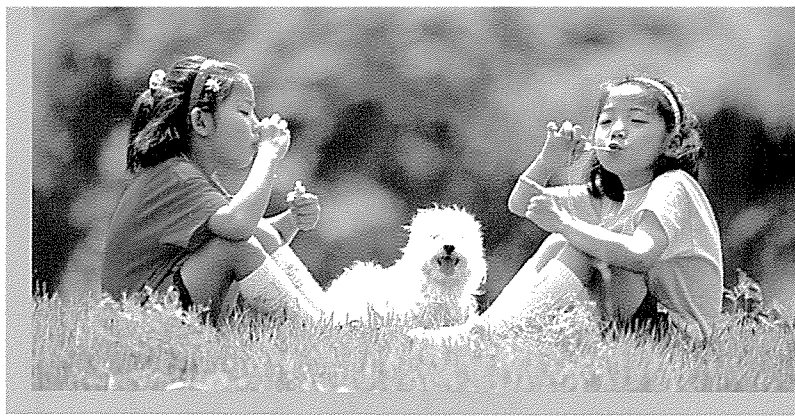
이처럼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환경부는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환경정책' 으로의 정책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환경보건정책이다.

기존의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 관리정책으로는 이러한 복잡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수용체인 국민건강 관점에서 사전예방적인 접근을 위해 환경보건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를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2월에는 중장기 로드맵이자 실천 계획인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06~'15)"을



이 치 범  
환경부장관



수립하고, 최우선적으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난 5월에 마련하였다.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은 10년 후인 2015년에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위협받는 위험인구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환경보건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갖고, 올해부터 앞으로 10년간 전체 158개 세부사업 추진해 7,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크게 3대 분야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첫 번째 분야는 위해성 평가·관리를 통하여 위험인구를 최소화하는 것으로써 공기, 물, 화학물질 등 각종 오염과 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 전반의 노출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 환경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조사, 예방 및 관리로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과 환경오염 간의 과학적인 상관관계를 조사·규명하여 질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서는 중장기적으로 질환자에 대한 지원체계까지 마련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이러한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인데, 환경성 질환

연구를 전담하는 가칭 “국립환경보건 연구소”를 설치하고, 권역별로는 병원을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연구전문센터”로 지정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보건증진법’ 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성 질환 문제는 최근 어린이를 중심으로 크게 급증하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낳고 있다. 이는 어린이가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하고 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인데,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의 환경권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어린이 활동 공간과 어린이용품의 위해성 관리, 실내 공기질 관리 등 어린이 건강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가 갈망하는 진정한 참살이는 결국 건강한 환경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환경보건정책의 출발은 바로 이런 상식에서 출발하였다. 환경보건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㉞